

■ **주요 뉴스:** 미국 3/4분기 기업실적 양호한 결과 예상되나 공급 차질비용증가의 리스크 내재

- 세계은행, 신흥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은 성장 부족
- 백악관, OPEC+에 원유 증산을 요청
- 중국 정부, 금융기관과 민간기업 간 부적절한 관계 여부를 조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 등이 영향

주가 하락[-0.7%], 달러화 상승[+0.3%], 금리[휴장]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3/4분기 기업 이익의 증가세 둔화 전망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 지수는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테이퍼링 발표 전망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는 0.9% 하락하며 달러화 대비 3년 만에 최저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
독일은 5월 이후 최고 수준. 중국 CDS는 8bp 급등하며 1년 6개월래 최고치

※ 원/달러 1M NDF환율(1196.7원, +1.2원) 0.1% 상승, 한국 CDS 상승

		10/11일	10/8일	전일대비			10/11일	10/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361.2	4,391.3	-0.69%	국제 금리 10y	미국	휴장	1.61%	-
	유럽	457.53	457.29	0.05%		독일	-0.12%	-0.15%	3bp
	중국	3,591.7	3,592.2	-0.01%	CDS 5y	한국	22bp	21bp	1bp
	일본	28,498	28,049	1.60%		중국	60bp	52bp	8bp
	한국	휴장	2,956.3	-	위험 지표	EMBI+	-	374	-
환율	달러지수	94.36	94.07	0.31%		VIX	20.00	18.77	6.55%
	유로화	1.1552	1.1569	-0.15%		WTI유	80.52	79.35	1.47%
	엔화	113.31	112.24	-0.94%	원자재	구리	433.9	427.6	1.49%
	위안화	6.4506	6.4437	-0.11%		금	1,754.2	1,757.1	-0.17%
	원화	휴장	1,194.6	-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3/4분기 기업실적, 양호한 결과 예상되나 공급 차질·비용증가의 리스크 내재

- 이번 주 주요 은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발표가 시작. Refinitiv는 S&P500 기업의 3/4분기 이익이 전년동기비 29.6%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는 양호한 수준이나, 기저효과 감소를 고려해도 2/4분기(96.3%)와 비교 시 증가세는 둔화
- 이러한 상황의 주요 요인으로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거론. FedEx와 Nike는 인력 부족에 따른 임금인상 및 추가 근로시간 증가, 공급 차질, 운송비 증가로 실적이 당초 기대를 하회할 수 있다고 발표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9월 S&P500 지수는 이미 고점 대비 5% 가량 하락. 하지만 BofA의 Savita Subramanian은 공급 차질 문제와 장기 측면에서의 부정적 신호들이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세계은행, 신흥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은 성장 부족

- 카르멘 라인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의 경우 빈곤 퇴치, 재정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5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

■ 백악관, OPEC+에 원유 증산을 요청

- 주요 산유국에 글로벌 경기회복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원유 생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또한 원유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

■ ECB 이사, 중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

- 레인 이사는 최근의 임금인상은 일회성 현상이며, 이를 지속적인 물가상승의 징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도 최근 물가급등은 일시적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언급
- 반면 네덜란드 중앙은행 뉓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은 저금리·저물가 여건에서만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

■ 이탈리아, 8월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율은 18개월만에 최저 수준

- 같은 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년동월비 1.2% 증가하여 전월(1.8%) 대비 하락. 이번 결과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신규 기업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 중국 총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강조

- 지난 주말 리커창 총리는 2년 만에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 역량 개선을 강조하고 에너지 시스템의 현대화를 주문

■ 중국 정부, 금융기관과 민간기업 간 부적절한 관계 여부를 조사

- 9월부터 시진핑 주석이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지시. 이번 조치는 시진핑 주석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추정

■ 모건 스탠리, 중국 부동산 부문의 투자전망을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

- 채무불이행 위험과 주택시장의 약점이 부각되면서 정부의 보다 완화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는 등 부동산 정책의 전환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
- 다만 이날 만기가 도래한 헝다그룹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은 이자를 받지 못했고, 또 다른 부동산업체 Modern Land는 이번 달 상환해야 하는 2억5000만달러의 이자지급 연장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시장 우려는 지속

■ 일본 총리, 자본소득세 인상 대신 세제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확대를 선호

- 기시다 총리는 단기적 시각에서 경제부문 목표는 과감한 통화완화, 유연한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을 활용한 견고한 토대 마련이라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11 현지시각 기준)

- 일본 9월 공장기계 수주(전년동월비): 71.9%, 8월(85.2%),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10/12 현지시각 기준)

- ECB 레인 이사 강연, 미국 8월 JOLTS 구인광고건수
- 미국 9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 독일 10월 ZEW 경기체감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기업 차입비용 증가 예상, 성급한 대응보다는 계획적 행동이 요구 - Financial Times

(Companies need to plan, not panic, over threat of end to cheap debt)

- 지난해 코로나 19 위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필요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 하지만 올해 중앙은행들의 긴축 신호 발신으로 투자등급 기업들은 예방적 성격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신규 채권 발행을 줄이는 추세
- Societe Generale의 Juan Valencia는 차입비용이 5~10년 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급한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언급.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중국 부동산 문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정크본드 등 고위험 상품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
-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향후 예상되는 비용 증가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 투자자 측면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전세계 공급망 혼란, 코로나 19로 인해 전례 없는 다수 요소가 작용 - 블룸버그

(There Is No Shortage of Reasons for the Broken Supply Chain)

-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문제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 지연의 결과로 운송, 에너지, 반도체 부문 등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 물류 측면에 발생한 문제는 지속적 수요 증가 확산 부재 및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
- 에너지 공급 문제는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속에 충분한 연료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반도체 부족은 일부 국가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이처럼 다수 요소가 맞물린 공급망 혼란 해법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며, 경제주체들의 자율 조정이 관건

■ 유럽의 에너지 부족 위기, 불안정한 공급 구조 등이 원인 - Financial Times

(Gas shortages: what is driving Europe's energy crisis?)

■ 중국의 전력 가격 인상, 금속 생산량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 - 블룸버그

(China Faces Power Hikes And That's Likely to Cut Metals Output)

■ 사이버 공격, 해킹정보 공유 및 국가세계적 기준의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 - Financial Times

(The inescapable problem of cyber attack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